

Incheon
Film
Week

인천 영화 주간

The
Reinvention
of The
Family

가족의 재발명

10.22.(토) ~ 10.24.(월) ~
10.23.(일) 10.28.(금)
스퀘어원, CGV 인천연수 인천광역시 일대

2022

개점 10주년

GRAND

Birthday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square1.co.kr 032)456-4000 인천 1호선 동춘역 1번 출구 영업시간 10:30~22:00 연중무휴



www.facebook.com/Mall.Square1



www.instagram.com/square1_incheon



blog.naver.com/square1mall



DRIVE IN 스퀘어원

꼭 봐야 하는 영화는

자동차 극장에서 즐기자!



CGV 자동차 극장 스크린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 명확한 타케팅 ✓ 강력한 광고 몰입도 ✓ 높은 호감도&회상도

문의 032)456-4620

목차

5	인사말	14	인천 영화 주간 초이스
6	축사	16	그들이 진심으로 엮을 때
7	여는 글	18	기쿠지로의 여름
8	행사 안내	20	늑대소년
9	상영 가이드	22	마당을 나온 암탉
10	프로그램 일정표	24	미쓰백
11	개막식	26	아내가 결혼했다
		28	아이를 위한 아이
		30	인크레더블
		32	인천 영화 주간 포커스
		34	메종 드 히미코
		36	브로커
		38	영주
		40	친애하는 세입자
		42	인천 영화 주간 특별전
		44	계춘할망
		46	고령화 가족
		48	그것만이 내 세상
		50	죽여주는 여자
52	SEE YOU IN CINEMA : 극장에서 만나요		
54	참여 극장 안내		
56	이벤트		
57	IFWK2022 : 가족 사진전 / IFWK2022 : 신춘문예		
58	IFWK2022 : 체험 프로그램(컬러링/블록)		
59	IFWK2022 : 버스킹		
60	도움주신 분들		
61	만든 사람들		

인사말

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백현주



'인천 영화 주간 2022'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 한국 영화 발전의 밑거름이 된 도시 인천에서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인천 영화 주간은 한국 영화사의 유구한 역사가 담긴 영화 도시, 인천 전역에서 펼쳐지는 일주일간의 영화 축제입니다. 다양한 문물이 가장 먼저 한국에 발을 딛는 이곳, 인천의 지리적, 문화적 특성과 늘 열린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수용해온 시민들 덕분에 인천에서는 화려한 문화와 예술이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근대극장인 애관극장, 경동 시네마 거리 등 수많은 '시네마 키드'들을 키워내며 인천은 한국 영화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숨 가쁘게 이뤄진 경제성장,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에 밀려 이제는 그 빛이 희미해져 가는 '인천의 시네마 천국'. 여러분과 함께 '인천 영화 주간'을 통해 그 빛을 다시 밝혀보고자 합니다.

올해는 특히 '가족의 재발명'이라는 주제를 선정, 정상 가족과 혈연 가족이라 일컬어지는 것들의 환상, 모순, 한계를 극복하고 가족의 근원적인 의미를 묻고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깊이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주제에 맞춰 영화 상영, 감독·배우와의 만남, 토크,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특별히 '우리 시대 가모장의 얼굴, 윤여정 특별전'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극장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들이 인천의 지역 극장에서 무료로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는 'SEE YOU IN CINEMA : 극장에서 만나요'도 진행됩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담아 준비한 올해의 프로그램을 통해 '재발명'된 가족의 의미를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인천 영화 주간을 개최하기까지 한결같은 응원과 도움을 주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색으로 물드는 낭만이 가득한 10월, 인천 영화 주간에서 영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축사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올해로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인천 영화 주간'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 백현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천은 영상산업의 잠재력을 가진 비교 불가능한 창조도시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개항의 역사를 간직한 아름다운 해양도시이며, 동시에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과 항만의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인천입니다. 인천은 또한 다양성과 역동성이 공존하는 '공존의 도시'입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새로운 문물이 다채로운 풍경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특별한 매력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공존의 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곳도 바로 인천입니다.

이러한 인천의 매력은 자연스럽게 영화 산업과 어우러졌습니다. 자연과 도시, 그리고 문화가 공존하는 인천의 고유한 풍경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물은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 전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적 관객 수 1,300만을 돌파한 영화<극한직업>이었습니다. 영화의 주 배경이었던 배다리 헌책방은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인천이 영화산업에 주력하는 이유입니다.

인천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최초로 넘어 최고를 향해, 또한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한국 영화의 중심이 되고자 합니다. '인천 영화 주간'이 그 소중한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이번 '인천 영화 주간 2022'에서는 '가족의 재발명'을 주제로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영화관 나들이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며 마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천 영화 주간 2022' 개최를 축하드리며, 인천 영화 주간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는 글

시작의 도시, 인천

인천은 처음이 많은 도시입니다. 짜장면, 호텔, 우체국, 병원, 은행, 영화관... 지금은 무척 익숙한 사물과 관습의 시작으로 되돌아가 보면 어느덧 우리는 인천과 만납니다. 인천은 전통과 개화를 중재하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가장 먼저 요청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인천이 우리 사회에 요청하는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인천에 부과된 지나친 낙인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연일 보도되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또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잘 이야기되지 못한 가족의 가치와 형태를 재고하길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천 영화 주간은 인천이 늘 그래왔듯, 영화와 함께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상상해보고자 합니다.

가족의 재발명

영화는 삶을 재현할 뿐만 아니라 삶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예술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가족의 해체라는 위기와 이를 넘어서는 모습을 상상하기에 알맞습니다. 이미 우리 주위엔 가족의 근원적 의미를 묻고 탐구한 수많은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들은 다채롭고 흥미로운 서사를 통해 소위 말해 정상 가족과 혈연 가족이라 일컫는 것들의 환상, 모순, 한계를 극복하며, 우리가 가족이 되기 위해 우선시해야 할 것들에 대해 고민합니다. 올해, 인천 영화 주간은 '가족의 재발명'을 주제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의 의미를 묻고 탐구하는 국내외 영화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때로는 유쾌하고 발칙하게, 때로는 진지하고 감성적으로 가족의 의미를 탐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가족의 기원으로서의 돌봄

우리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각자가 속한 가족의 모습은 제각각입니다. 당연하게도 그러한 형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 본질은 혈연이나 규범이 아니라 구성원 간의 애정과 돌봄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충분히 아끼고 보살피고 있다면 그들은 가족으로 불러 마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입양 가정뿐만 아니라 비혈연으로 결합된 다양한 돌봄 공동체에 가족이라는 이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인천 영화 주간은 올해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가족 구성의 필수적인 동력으로서 돌봄의 개념을 깊이 탐구하는 포커스 섹션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시급히 요청되는 돌봄의 가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대 가모장의 얼굴, 윤여정

올해 인천 영화 주간은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 윤여정이 출연한 영화를 다시금 선보여, 윤여정이라는 노년의 배우가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외유내강한 가모장의 모습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윤여정은 특히 2010년대 영화에서 혈연 가족뿐만 아니라 유사 가족의 견고한 구심점으로서 각양각색의 구성원들을 아우르고 포용하며 이끌어가는 역할을 줄곧 맡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은 마냥 인내하고 희생하는 전통적인 모성의 이미지와는 다릅니다. 윤여정은 구성원들의 허물을 모두 끌어안으며 가족을 끝까지 지키면서도 그 배경으로 가만히 물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모든 가족의 시작이자 끝으로서, 가족의 성격을 결정지으며 가족을 자신만의 고유한 빛깔로 물들입니다.

10.22.(토)~10.23.(일)

행사 안내

행사 공간

스퀘어원 및 CGV 인천연수

인포메이션

CGV 인천연수 로비 (스퀘어원 4층)

티켓 발권

CGV 인천연수 로비 (스퀘어원 4층)

상영 장소

- CGV 인천연수 1관
- CGV 인천연수 2관
- CGV 인천연수 3관
- 스퀘어원 야외광장

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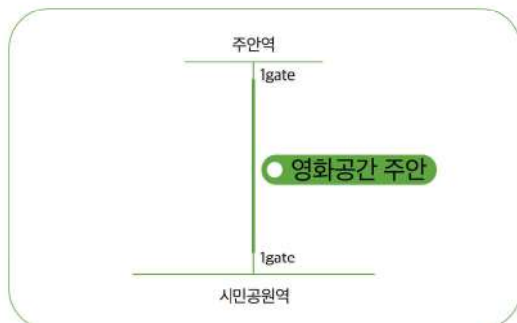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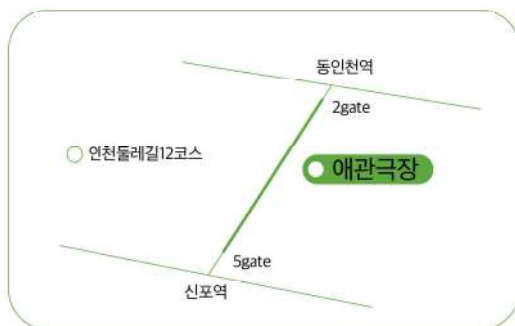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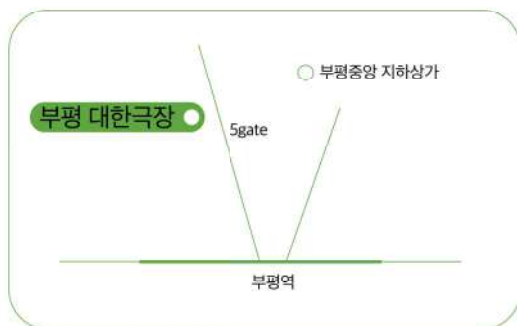
스퀘어원 주차 공간 이용(무료)

찾아오시는 길



10.24.(월)~10.28.(금)

<SEE YOU IN CINEMA : 극장에서 만나요> 참여 극장 안내



상영 가이드

코로나19 관련 유의 사항

- 입·퇴장 시 현장 스태프의 안내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상영관 및 행사장 입장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행사장에 비치된 손 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티켓 안내

티켓 가격: 무료(온라인 예매)

상세 방법:

1. 온라인을 통한 선착순 사전 예매
 - 온라인 예매 기간: 10.11.(화)—10.20.(목)
 - '인천 영화 주간' 네이버 예매 시스템 확인
2. 신청 순서에 따라 개별 확정 안내
3. 영화제 기간 내 실물 티켓 교환
 - ※ 티켓 교환 장소: CGV 인천연수 내 티켓 부스
 - ※ 온라인 예매의 No-Show 좌석에 한하여 당일 선착순 현장 발권 가능합니다.

상영관 운영 안내

- 모든 상영관은 티켓 소지자에 한해 입장이 가능합니다.
- 정시 상영을 원칙으로 하며, 입장은 상영 시작 후 10분까지 허용합니다.
- 영화 상영 중 사진 및 영상 촬영은 불가하며 이동 및 재입장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상영작 관람 등급에 따라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영관 내 음식물 섭취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급

- ㉠ 전체 관람가
- ㉡ 12세 이상 관람가
- ㉢ 15세 이상 관람가
- ㉣ 18세 이상 관람가

기타

- C Curation 영화 해설
- T Talk 토크
- GV Guest Visit 감독과의 대화

프로그램 일정표

10.22.(토)

장소	시간	프로그램	등급	기타
CGV 인천연수 1관	14:00	미쓰백 Miss Baek	⑮	GV
	17:00	친애하는 세입자 Dear Tenant	⑫	T
CGV 인천연수 2관	14:30	고령화 가족 Boomerang Family	⑮	GV
	18:00	죽여주는 여자 The Bacchus Lady	⑱	GV
CGV 인천연수 3관	13:00	개막식 + 개막 공연 Opening Ceremony + Opening Performance	㉠	
	15:00	아내가 결혼했다 My Wife Got Married	⑱	GV
스퀘어원 야외광장	19:00	인크레더블 The Incredibles	㉠	

10.23.(일)

장소	시간	프로그램	등급	기타
CGV 인천연수 1관	11:00	그것만이 내 세상 Keys to the Heart	⑫	C
	14:30	브로커 Broker	⑫	T
	18:30	늑대소년 A Werewolf Boy	⑮	C
CGV 인천연수 2관	10:30	그들이 진심으로 엮을 때 Close-Knit	⑫	T
	14:30	기쿠지로의 여름 Summer of Kikujiro	㉠	C
	18:00	메종 드 히미코 La Maison De Himiko	⑮	T
CGV 인천연수 3관	11:30	영주 Youngju	⑫	T
	15:00	아이를 위한 아이 A Home from Home	⑫	GV
	18:00	계춘할망 Canola	⑮	T
스퀘어원 야외광장	19:00	마당을 나온 암탉 Leafie, a Hen into the Wild	㉠	

오프닝

개막식

10.22.(토) 13:00 CGV 인천연수 3관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모여있는 인천에서 '가족의 재발명'이라는 주제로 '인천 영화 주간 2022'의 개막식이 개최된다. 가족의 의미를 묻고 탐구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선보이기에 앞서 개막식에서는 개막을 알리는 개막 선언과 함께 개막 축하공연, 김경태 프로그래머의 인천 영화 주간 프로그램 소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자 유진영

수도권 지상파 방송국인 OBS 경인 TV 개국과 함께 입사한 유진영 아나운서는 OBS를 대표하는 아나운서로서 메인 OBS 뉴스 앵커부터 우리말 프로그램 <정말로>, <꿈꾸는 U> 등 다양한 프로그램 MC로 활약해왔다. 또한 문학산 음악회, 바다 동요 대회,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등 굵직한 행사에서 신뢰감 있는 진행으로 인정받으며, 한국아나운서협회가 주최하는 2020 한국아나운서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바 있다.



프로그래머 김경태

연세대학교 강사. 중앙대학교 영상예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객원연구원, 부산국제영화제 지식영화연구소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개막 공연

10.22.(토) 13:00 CGV 인천연수 3관



공연자 소수빈

소수빈은 싱글 「oh-i」를 시작으로 셀프 프로듀싱한 「소심」 프로젝트로 데뷔했다. 「넌 내게 특별하고」, 「췌」, 「잘 되길 바랄게」, 「얼마나 더」 등 그의 진심이 담긴 디스코그래피들을 차곡차곡 채우며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세상 잘 사는 지은씨>, <에이틴> OST 등에도 참여했다. 이후 다양한 페스티벌에 등장하여 부드러운 보이스와 성숙한 무대매너로 대중들에게 이름을 각인시켰으며, 2019년에는 1000석 규모의 연말 단독 공연 <Soobi New Year>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렇듯 소수빈은 본인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싱글 「See you again」을 시작으로 소수빈의 음악은 더 깊어지고 넓어질 예정이다.

인천 영화

주간

초이스

초이스 섹션은 교착상태에 빠진 가족의 대안을 흥미롭게 상상하는 다양한 영화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상 가족에 대한 환상을 넘고 가족의 해체라는 위기를 극복해 가는 가족의 모습들을 재현한 영화를 상영한다. <기쿠지로의 여름>, <미쓰백>, <그들이 진심으로 엮을 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결핍된 혈연 가족 안에서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선물'처럼 이웃 어른들이 다가온다. 그런데 그 어른들은 전직 야쿠자인 백수, 어린 나이에 전과자가 된 여성, 트랜스젠더 여성으로서 사회적으로 주변인에 속한다. 그들은 자신의 받은 상처와 소외의 경험에 비추어 각자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돌보며 그들과 친구가 된다. 한편, <늑대소년>과 <아이를 위한 아이>는 버림받은 아이가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장르적 긴장감 속에 녹여낸다. 한편, <아내가 결혼했다>는 일부일처제에 도발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폴리아모리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아울러, 야외 상영으로 공개될 <인크레더블>과 <마당을 나온 암탉>은 모든 연령층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가족 애니메이션으로, 웃고 우는 동안에 가족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감독과의 대화, 영화 해설, 토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에게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들이 진심으로 엮을 때

Close-Knit

Director

오기가미 나오코

- 강변의 무코리타 (2021)
- 고양이를 빌려드립니다 (2012)
- 토일렛 (2010)

일본 | 2017 | 128' | ㉔

10.23.(일) 10:30 CGV 인천연수 2관
Talk

토크

이동윤

한예종 영상원에서 영화 연출, 시나리오, 영상문화이론을 공부했다. CGV 아트하우스 큐레이터, 춘천SF영화제 프로그래머를 역임했으며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와 『한국퀴어영화사』 시리즈를 책임 편집했다. 현재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글을 쓰고 있다.

토크

에디

트랜지션 10년 차, 모두에게 트랜스젠더와 같은 성소수자 친구들의 존재가 자연스러운 세상을 꿈꾸는 ESFP / B형 / 강아지 두 마리와 함께 자연사를 위해 오늘도 건강 보조약을 챙겨 먹는다.

12살 소녀 '토모'는 엄마와 단둘이 산다. 엄마 '히로미'는 남자와 사랑에 빠지면 딸을 내팽개친 채 몇 날 며칠 집을 비우기 일쑤일 만큼 철이 없다. 그때마다 토모를 돌봐주는 이는 외삼촌 '마키오'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키오와 동거 중인 '린코'라는 트랜스젠더 여성이 함께 반겨준다. 경계하던 토모는 그녀가 정성 들여 준비한 도시락을 계기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연다. 한편, 린코는 자신을 혐오하는 이들과 맞서 싸우거나 그들을 계몽시키려는 노력 대신에 뜨개질에 침잠한다. 그것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그녀/감독이 택한 윤리적 방식이다.

어릴 때부터 린코에게 여성의 가슴은 늘 선망의 대상이었다. 어머니는 그런 그를 나무라기보다는 지지해주며 브래지어와 함께 직접 털실로 엮어 솜뭉치를 채운 가짜 가슴을 선물했다. 그것은 트랜스젠더로서의 성 정체성을 단순히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자신의 몸을 불편해하는 그를 위로하는 돌봄 행위이다. 따라서 린코에게 있어 수술을 통해 얻게 된 풍만한 가슴은 완전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 그 가슴은 돌봄 행위 속에서 여체의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기준을 벗어나 관계적 의미로 확장한다. 그런 기능에 충실하다면 그 가슴이 '진짜'일 필요는 없다. 린코는 악몽에 시달리던 토모를 깨워 품에 안는다. 토모는 진짜 가슴보다는 조금 단단한 인공 가슴을 주무르며 위안 받는다. 린코는 자신 가슴을 기꺼이 내어주며 토모의 정서적 결핍을 채운다. 이처럼 가짜 가슴은 영화 전반에 걸쳐 돌봄 관계의 매개로 활용된다.

마침내 돌아온 히로미에게 마키오는 토모를 자신들이 키우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히로미는 린코의 생리적 한계를 지적하며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의구심을 보인다. 그리고 자신이 딸에게 잠시 소홀했던 것은 엄마이기에 앞서 여자기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그녀는 계속해서 돌봄 행위의 성패 여부를 개인의 자질 문제로 환원한다. 그러나 아이를 돌보는 것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의무이다. 따라서 부모나 가족의 자리를 인정받는 것보다 서로에 대한 돌봄 행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것은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는 가슴이 무조건적인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가슴을 가슴답게 하는 것은 그것이 본래의 쓰임에 충실할 때이다. (김경태)



기쿠지로의 여름

Summer of Kikujiro

Director

기타노 다케시

- 8인의 수상한 신사들 (2015)
- 아웃레이지 비욘드 (2012)
- 아웃레이지 (2010)

일본 | 1999 | 121' | ©

10.23.(일) 14:30 CGV 인천연수 2관
Curation

영화 해설

김혜리

1995년부터 『씨네21』에서 영화와 영화인들에 관한 글을 쓰고 있다. 펴낸 책으로 『영화야 미안해』 『그녀에게 말하다』 『영화를 멈추다』 『진심의 탐닉』 『그림과 그림자』 『나를 보는 당신을 바라보았다』 『묘사하는 마음』이 있다. 팟캐스트 '김혜리의 필름클럽'과 '조용한 생활'을 진행하고 있다.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유쾌한 로드무비. 9살 '마사오'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 아빠는 사고로 죽었고 엄마는 멀리 돈을 벌러 갔기 때문이다. 여름방학이 되자 부모의 빈자리가 크게 다가온다. 할머니는 평소와 같이 일을 하러 가고, 친구들은 모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학교 축구부도 방학 동안은 쉬기 때문에 혼자 지내야 할 시간이 늘었기 때문이다. 마사오는 우연히 엄마의 주소를 발견하게 되면서 엄마를 만나기 위해 용돈과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선다. 그러나 동네를 벗어나기도 전에 강패들에게 붙잡혀 돈을 뺏긴다. 다행히 그 주변을 지나던 '기쿠지로'와 그의 아내가 마사오를 구해준다. 이제 철없는 백수 기쿠지로가 마사오의 보호자가 되어 둘은 함께 마사오의 엄마를 찾으러 먼 길을 떠난다.



그러나 산만하고 장난기 많은 기쿠지로는 마사오의 엄마를 찾는 일은 뒷전이다. 아내가 준 여행 경비로 경륜을 하거나 술집에서 술을 마신다. 돈이 없어 흠친 택시가 고장이 나서 막무가내로 남의 차를 얻어 타기도 한다. 그렇게 만난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어울려 놀기도 한다. 그래서 목적지예의 도달은 계속해서 지연된다. 마침내 엄마의 집 앞에도 착했을 때, 엄마는 이미 다른 이들과 단란한 가족을 이루고 있었다. 실망한 마사오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뒤돌아서 걸어간다. 기쿠지로는 그런 그를 위로하기 위해 애쓴다. 길에서 만난 사람들과 힘을 합쳐 마사오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다양한 놀이를 한다. 이제 마사오와 기쿠지로가 엄마를 찾아 떠나는 긴 여정의 의미는 목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함께 보내는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은 오롯이 서로에게 집중하기 위한 시간이어야만 한다. 가족을 가족답게 하는 것은 혈연이나 제도적 인정이 아니라 공유하는 시간이다. 특히나 기쿠지로는 놀이에 특화되어 있다. 그에게 여가 활동은 일터에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재충전의 차원을 넘어선다. 호텔 영업을 지속해서 방해하고, 방향이 다르다며 태워주기를 거부하는 운전사의 트럭 유리창을 박살 낸다. 그것은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며 나아가 인간의 놀이 시간을 빼앗는 노동을 위협한다. 노동 중심의 사회는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계를 통제하려 하기 때문이다. 놀이의 시간은 다양한 관계성을 실험하는 시간이다. 새로운 친밀한 관계는 다른 목적 없이 마음껏 유희하는 시간 속에서 시작된다. (김경태)



늑대소년

A Werewolf Boy

Director

조성희

- 승리호 (2021)
-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 (2016)
- 짐승의 끝 (2010)

한국 | 2012 | 124' | ㉔

10.23.(일) 18:30 CGV 인천연수 1관
Curation

영화 해설

이동윤

한예중 영상원에서 영화 연출, 시나리오, 영상문화이론을 공부했다. CGV 아트하우스 큐레이터, 춘천SF영화제 프로그래머를 역임했으며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와 『한국퀴어영화사』 시리즈를 책임 편집했다. 현재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글을 쓰고 있다.

늑대소년은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괴물과 전설 속 존재인 늑대인간의 피를 수혈 받았다.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철저한 합리주의적 세계관 속에서 근대화의 산물로 잉태되었다면, 늑대인간은 '소문'이라는 비합리적인 전근대적 가치관 속에서 구성되었다. 프랑켄슈타인이 인간이 가닿을 수 없는 신적 영역에 침범함으로써 터부시된 존재라면 늑대인간은 인간의 비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심으로 인해 터부시되었다. 원인과 과정은 다르지만 두 존재를 혐오스런 존재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합리적 가치관은 이들의 피를 수혈 받은 늑대소년 '철수(송중기)'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늑대소년의 시대는 명확하지 않다. '순이(박보영)'의 가족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국이 산업자본주의 체제로 들어선 직후임을 감안할 수 있다. 늑대소년이 강한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는 아육에 의해 탄생했다는 설정은 한국 사회가 이데올로기 전쟁의 트라우마 속에 놓여있음을 깨닫게 한다. 자본주의적 욕망과 반공 이데올로기 속에서 태어난 늑대소년은 흥미롭게도 전근대적 삶의 가치관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외딴 시골에서 발견된다. 그곳에서 늑대소년은 주민들에게 그리 낮은 존재로 터부시되지 않는다. 순이의 어머니는 그를 씻기고 새 옷을 입혀 문명사회로 초대하고 이웃 주민들 또한 '철수'라는 이름을 부르며 받아들인다. 화천이 다른 작품들을 통해 심리적으로 '정말 먼 곳'으로 상상되었던 지역임을 상기해보자면, 합리적 가치관 속에 터부시되어야 했던 존재인 늑대소년은 기술사회에서 벗어나 자본의 영향으로부터 비껴나 있을 때야 비로소 '혐오'를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늑대소년은 법적, 행정적 테두리 밖에 존재한다. 늑대소년은 고아원에 가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수없이 많은 서류 중에서 그 어떤 한 가지도 마련할 수 없는, 철저히 기록으로부터 배제된 존재다. 하지만 <늑대소년>은 늑대소년의 타자성을 그리는데 큰 관심이 없다. 오히려 그가 어떻게 순이와 교감하는지, 순이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집중해 묘사한다. 조성희 감독은 그 중심에 기술과학 중심의 자본과 합리적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난 인본주의적 가족 공동체를 세운다. 돈과 조건으로 결혼 대상을 판단하는 나이 든 순이의 태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낯선 타자와 더불어 함께 살아갈 방법이라는 감독의 목소리는 혐오가 더욱 가시화되어가는 지금의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울려야 하는 경종이기도 하다. (이동윤)



마당을 나온 암탉

Leafie, a Hen into the Wild

Director

오성윤

- 불꽃놀이 (2020)

- 인더독 (2018)

한국 | 2011 | 93' | ©

10.23.(일) 19:00 스퀘어원 야외광장

'잎싹(문소리)'은 양계장에 갇힌 채 인간이 주는 모이를 먹으며 매일 기계적으로 알을 낳는 암탉이다. 마당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수탉과 씨암탉이 병아리들을 거닐며 마당을 자유롭게 노니는 모습이 보인다. 잎싹의 부러워하는 시선은 양계장 입구 앞에 호기심 어린 얼굴로 멈춰선 병아리에게 고정된다. 불과 몇 미터 떨어져 있는 마당이지만 무척 멀게 느껴진다. 마당은 자유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알을 부화시켜서 엄마가 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양계장에서 는 찾을 수 없는 삶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모이를 먹지 않고서 죽은 척을 하고 마당으로 나오지만, 수탉의 텃새로 어쩔 수 없이 낮선 낯지대로 가게 된다.



앞썩은 숲에서 족제비에게 물려간 청둥오리가 남긴 알을 발견하고는 본능적으로 품는다. 알에서 태어난 아기 오리 '초록(유승호)'은 앞썩을 엄마라고 부른다. 마침내 엄마가 된 앞썩은 초록을 정성껏 돌본다. 그러나 사춘기에 접어들어 초록은 자신과 달리 수영을 할 수도, 날 수도 없는 엄마로 인해 친구들의 놀림을 당한다. 엄마와 자신이 다른 종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초록은 앞썩을 냉랭하게 대한다. 한편, 앞썩은 그런 불리한 신체 조건에도 기지를 발휘하면서 초록을 끝까지 위기에서 지켜내며 엄마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초록은 철없던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며 청둥오리 무리의 파수꾼이 된다.

분명, 앞썩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존재이다. 양계장에서 인간의 모이를 먹으며 사는 가족으로서의 안전하지만 자식이 부재한 삶보다는, 약육강식이라는 생태계의 위험이 도처에 있더라도 자식과 함께 할 수 있는 늪지에서의 삶을 선택한다. 심지어 그 자식은 자신과 종이 다르기에 애초에 해줄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 그러나 앞썩이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양계장에 갇혀있었다면, 혹은 버려진 청둥오리 알을 품에 안지 않았다면, 지금의 초록은 없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기에 모성의 위대함은 더욱 두드러진다. 그리하여 <마당을 나온 암탉>은 인류애의 기원으로서의 모성에 대한 우화이다. 모성은 혈연이라는 제한적 조건에서만 자신과 닮은 아이를 향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이를 지키고 돌보고자 하는 인간의 보편적 속성으로 승화되어야만 한다. (김경태)



미쓰백

Miss Baek

Director

이지원

- 그녀에게 (2007)

한국 | 2017 | 98' | ㉔

10.22.(토) 14:00 CGV 인천연수 1관
Guest Visit

<미쓰백>의 세계는 강력계 형사, '장섭(이희준)'이 경험하는 세계로 연결된다. 어떤 정의도 통용되지 않는 냉혹함만 가득한 세계. '미쓰백(한지민)'은 그런 장섭의 세계-내-존재로서 그 세계 속에 갇혀 있다. 어머니로부터 폭행 당하고 (비록 딸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다고는 하지만) 철저히 버림받은 순간부터 미쓰백은 절대 장섭의 세계를 벗어날 수 없다. 장섭이 미쓰백과 꿈꾸는 행복한 가정은 주관자가 여유롭게 그려보는 판타지일 뿐이다. 폭력의 세계를 고통 속에서 견뎌내야 하는 피조물에게는 그 어떤 희망을 품는 행위도 일종의 고문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미쓰백은 모든 사람들을 밀어낸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반면 지은은 냉혹한 폭력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벗어나려 노력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미쓰백과 지은의 세계는 서로 맞닿아 있음에도 두 사람이 세계를 대하는 태도는 정반대다. 미쓰백이 주변 인물들을 밀어내며 철저히 그 어떤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면 지은은 적극적으로 그 세계를 벗어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구조요청을 보낸다. 두 사람의 태도 차이는 세계-내-경험으로부터 비롯된다. 절대 벗어날 수 없음을 시간 속에서 터득한 미쓰백과 아직 비극적인 미래를 경험하지 않은 지은의 차이. 이지원 감독은 그사이의 거리감을 서서히 좁혀가며 고통뿐인 세계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한다.

감독이 제시한 탐색의 결과를 '서로의 상처를 알아봐 주고 보듬는 것'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 물론 서로의 상처를 쓰다듬는 장면들이 등장하기에 이 메시지 자체를 부정할 수도 없다. 하지만 <미쓰백>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선택한 과도한 폭력의 재현은 역설적으로 단순 명료한 메시지를 가리고 희석하며 그 이면을 좀 더 사유하고 직면하도록 만든다. 관객들을 극장의 의자에 포박시켜 놓은 채 보고 싶지 않은 순간들을 보도록 강요하는 감독의 태도는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도전적이고 문제적이다. 모든 폭력에 대한 재현은 관람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폭력을 비판하기 위해 결국 폭력을 재현해야 하는 딜레마는 모든 영화들이 안고 있는 숙제이기도 하다. 최근의 대부분 많은 영화는 이 논란을 애초에 피해간다. 쓸데없는 논쟁과 비판을 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냥 폭력 재현을 생략하거나 메타포로 감춘다. 하지만 이지원 감독은 애써 돌아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세계다'라고 직시하도록 만든다. 미쓰백과 지은의 세계는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팝콘을 씹어가며 관조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어쩌면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두 사람을 폭력의 세계 속에서 건져 올리는 방법이 아닐까? (이동윤)



아내가 결혼했다

My Wife Got Married

Director

정윤수

- 두 여자 (2010)
-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 (2007)
- 예스터데이 (2002)

한국 | 2008 | 119' | Ⓜ

10.22.(토) 15:00 CGV 인천연수 3관
Guest Visit

<아내가 결혼했다>는 '일부일처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도발적인 영화로, 동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2002년뿐만 아니라 영화가 개봉한 2008년 당시에도 분명 시대를 앞서간 '비독점적 다자 연애'와 '중혼'의 화두를 한국 사회에 던진 문제작이었다. 하물며 10년이 훌쩍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논쟁적인 영화이기도 하다. 그 사이 한국에서는 실제로 폴리아모리 관계에 있는 이들의 당당한 목소리가 언론 매체를 통해 들려오는 등의 작지만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이 영화를 현시점에서 다시 꺼내 보는 것은 가족을 다시 발명하기 위한 또 다른 기원으로서 유의미하다.

*상영본 제공: 한국영상자료원



‘인아(손예진)와 덕훈(김주혁)’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다. 문제는 인아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없는 폴리아모리라는 사실이다. 결혼을 하면 달라질 거라 기대했지만, 행복한 신혼 생활에도 불구하고 인아는 결혼하고 싶은 또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고백한다. 그와 함께라면 지금보다 내가 더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덕훈은 혼란스럽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인아를 너무 사랑하고 또 자신을 향한 그녀의 진심을 믿기에 헤어지지 못한 채, 그녀와 ‘재경(주상욱)’의 결혼을 승낙한다. 이제 인아는 두 집을 오가며 사회적 편견에 맞서 새로운 형태의 사랑에 도전한다.

인아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덕훈과 재경이 공유하면서 둘 사이에는 날카로운 긴장감과 동시에 묘한 유대감이 생긴다. 긴장감이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인아는 아이를 데리고 그들 곁을 모두 떠난다. 즐지에 혼자가 된 그들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 자신이 인아를 더 사랑한다고 주장하며 마음을 연다.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시기했다가, 또 정확히 같은 이유로 서로를 연민한다. 그들은 함께 인아와 아이가 머무는 스페인으로 향한다. 스페인에서 조우한 네 사람은 마치 한 가족처럼 유쾌한 표정으로 축구 시합을 보고 거리를 여유롭게 거닌다. 적어도 이국의 땅에서만 큼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사랑하고 가족을 꾸릴 수 있는 듯하다. 영화는 서사를 중단 시킨 채 이들 관계에 대해 더 이상의 부연 설명도, 판단도 하지 않는다. 대신 경쾌한 남미 음악을 배경으로 그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뿐이다. 폴리아모리의 유토피아적 비전이 마지막 장면 속에 가만히 스며든다. (김경태)



아이를 위한 아이

A Home from Home

Director

이승환

- 아이 씨 (2019)

- 잠물 (2017)

한국 | 2021 | 97 | ⑫

10.23.(일) 15:00 CGV 인천연수 3관
Guest Visit

이제 곧 성인이 되는 '도윤(현우석)'은 보육원에서 퇴소할 준비를 한다. 그는 대입 준비를 하기보다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은 돈으로 호주로 떠날 계획을 세운다. 그런데 갑자기 15년 전에 그를 보육원에 맡기고 떠나버렸던 아버지 '승원(정웅인)'이 나타나 다시 함께 살자고 제안한다. 도윤은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을 하려는 그가 달갑지 않다. 계속 거절하던 도윤은 고민 끝에 잠시 머물 생각으로 승원과 이복동생인 중학생 '재민(박상훈)'이 있는 집으로 들어간다. 그들과 막 가까워질 때쯤, 승원이 질병으로 세상을 떠난다. 알고 보니, 승원은 자신이 죽고 나서 재민을 돌봐줄 보호자로 도윤이 필요했다. 심지어 그는 도윤의 친아버지도 아니었다. 그는 심한 배신감에 분노하며 재민을 떠나려고 한다.



재민은 울며 같이 살자고 도윤을 붙잡는다. 그냥 남들처럼 쉽게 살면 안 되냐고 묻는다. 도윤은 쉽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왜 승원이 남겨 놓은 재산으로 살 수 있는 편한 삶을 선택하지 않는 것일까? 자신의 자리를 찾는 일이 그보다 중요한 것일까? 애초에 그가 보육원에서 살게 된 것은 그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는 퇴소와 함께 비로소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느닷없이 승원이 나타나 아들이자 형의 자리를 줄 테니 안락한 혈연가족의 품으로 들어오라고 한다. 도윤은 더 이상 어른들의 편익에 휘둘리는 삶을 살고 싶지 않기에 그 자리가 정말 자신의 자리가 맞는지 길게 망설이고 방황한 것이다. 그 자리가 가짜였음을 알게 되었기에 주저 없이 호주로 떠날 수 있다.

물론 그것이 재민과의 영원한 이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재민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더라도 이미 도윤에게 가족과도 같은 소중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관계의 진실을 마주했기 때문에 둘은 기존의 규범적이고 관성화된 혈연관계를 넘어 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서로를 위한 관계의 자리를 만들어 간다. 관계는 진실을 통해 와해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화위복으로 삼는다. 승원의 말대로, 가족이란 살면서 서로 의지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 관계가 아무리 거짓에서 출발했더라도, 혹은 어디에서 본 적이 없어 낯설더라도, 둘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면 된다. 그들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각자의 자리를 찾아간다. (김경태)



인크레더블

The Incredibles

Director

브래드 버드

- 인크레더블 2 (2018)
- 투모로우랜드 (2014)
- 미션임파서블: 고스트프로토콜 (2011)

미국 | 2004 | 115' | ©

10.22.(토) 19:00 스퀘어원 야외광장

자본주의는 가부장 중심의 가족제도를 통해 자본의 재생산을 유지한다. 출산으로 증가한 인구수는 노동력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자본 권력을 강화해 좀 더 수월하게 노동력을 통제할 수 있게 만든다. 기계와 인간 모두 안정된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선 일정 기간 쉼이 필요한데 이를 보장하는 것 또한 가족제도다. 물론 인간에게도 가족은 필요하다. 가족이야말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 단위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족을 혈연 중심으로 상상하며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보다는 그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개별 존재들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데 있다. <인크레더블>은 자본주의가 강요해왔던 가족제도를 풍자한다. 엘라스티걸의 주장처럼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선 미스터 인크레더블은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해야 한다. 세상을 구원할 수 있었던 슈퍼 파워도 가족 내에선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여기서 엘라스티걸이 강조한 초능력 그 이상의 힘은 가족을 위한 자기희생으로 연결된다. 히어로가 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부장의 역할에 충실할 것. 개인의 역량을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초능력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엘라스티걸의 역설은 충분히 흥미롭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체제가 가족제도에 요구해왔던 이데올로기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여성 영웅으로서의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왔던 그녀가 가족 내 여성의 역할에 충실한 것을 넘어서서 남편의 욕망과 가치를 제한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작용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도시가 파괴되고 있음에도 두 달 전에 예약한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남편을 몰아세우는 프로즌의 아내 태도를 포함해 영화 속에 삽입된 여성에 대한 왜곡된 태도를 굳이 남성 감독의 한계라고 단순 비판하고 싶진 않다. 오히려 비판의 대상은 가족제도를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의 확성기 역할을 했던 '디즈니'로 향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작품은 개봉한 2004년 이후 디즈니는 많은 변화를 감행했고, 가족제도와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루한 태도는 많이 벗어났다. 하지만 할리우드 영화 산업 시스템 전체가 표방하는 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해선 여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할리우드 영화 산업이야말로 자본의 집약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을 제한하지 않고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인크레더블>의 주장은 여전히 귀담아들을 만하다. 가족제도가 자본에도, 인간 존재에게도, 모두에게 필요한 제도라면 조금 더 모든 존엄한 존재들의 재생산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인크레더블>의 액션을 좀 더 신나게 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동윤)

*스틸 사진 제공: 디즈니 / 픽사 ©Disney / Pixar



Disney PRESENTS A PIXAR FILM
THE INCREDIBLES

인천

포커스

:

가족의
기원으로서의
돌봄

영화 주간

포커스 섹션에서는 가족의 기원이 되는 돌봄의 가치를 의미있게 담아낸 영화들을 상영한다. 우리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각자가 속한 가족의 모습은 제각각이다. 당연하게도 가족의 형태에는 정답이 없다. 가족의 본질은 혈연이나 규범이 아니라 구성원 간의 애정과 돌봄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가 비혈연으로 맺어진 다양한 돌봄 공동체를 가족으로 명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영화 상영 후에는 생활동반자법, 영케어러, 입양, 가족구성권 등의 키워드로 책을 쓴 저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영화와 영화가 다루고 있는 돌봄이라는 주제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친애하는 세입자>는 동성애자 남성이 애인의 죽음 후에 남겨진 그의 병든 어머니와 어린아이를 돌보며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며 가족이 되어 가는 지난한 과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이를 통해 황두영(『외롭지 않을 권리』)은 ‘생활동반자법’ 도입의 의미를 짚어 나갈 것이다. <영주>는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이런 나이에 동생을 돌봐야 할 ‘영케어러’가 된 소녀의 미묘한 심리 변화에 주목한다. 많은 영케어러들을 인터뷰한 조기현(『새파란 돌봄』)은 그들 역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존재임을 상기시켜 줄 것이다. <브로커>에서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갔던 비혼모가 자신의 아이를 키워줄 양부모를 찾는 여정에 동행한다. 실제로 아이를 입양한 정은주(『그렇게 가족이 된다』)는 영화를 통해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논쟁에서부터 입양을 위한 마음가짐까지 탐구하고자 한다. 끝으로, <메종 드 히미코>는 게이 실버타운을 배경으로 돌봄 공동체의 끈끈한 유대를 보여준다. 가족구성권연구소에서 활동하는 김순남(『가족을 구성할 권리』)은 이성애 규범적인 가족을 넘어서는 쿼어 공동체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메종 드 히미코

La Maison De Himiko

Director

이누도 잇신

- 서툴지만, 사랑 (2014)
- 무사 노보우: 최후의 결진 (2011)
- 제로 포커스 (2009)

일본 | 2005 | 131' | ㉔

10.23.(일) 18:00 CGV 인천연수 2관
Talk

토크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 여성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성공회대학교에서 강의하며 '젠더연구소' 연구교수, '한국여성학회' 이사, '한국가족학회' 연구위원으로도 일한다. '오류동퀴어세미나'를 통해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섞이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남성들의 성희롱이 가득한 회사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사오리(시바사키 코우)'. 그녀는 오래전 어머니와 자신을 버리고 떠난 게이 아버지 히미코를 원망하며 살아왔다.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자신이 아버지의 애인이라는 '하루히코(오다기리 쇼)'라는 남자가 찾아와 그녀의 아버지가 말기 암이라는 소식을 전한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있는 성 소수자 실버타운 메종 드 히미코에서 아르바이트로 집안일을 도울 것을 제안한다. 결국 사오리는 회사와 메종에 양발을 하나씩 담그게 된다.

메종 드 히미코 성 소수자들의 짓곳은 장난은 회사 전무의 성욕과 작동 방식이 유사하다. 게이 사오리의 가슴을 감자기 움켜잡는 것은 자신의 비-남성성을 승인받기 위한 제의(祭儀)처럼 보인다. 그러니 메종 드 히미코는 폭력적인 공간일 수 있다. 그 두 공간 모두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그 안에서 사오리의 존재는 미결정으로 남는다. 제대로 호명되지 않기에 주체가 될 수도 없다. 사오리를 통해 보면 우리는 남성성의 폭력과 성소수자의 고통만을 재확인한다. 사오리의 존재는 특별하기에 우리는 그녀를 잘 봐야 한다. 하루히코는 게이이기 때문에 여성인 사오리와의 성관계는 불가능하다. 사오리와 하루히코와의 관계가 성관계로 이어지지 않듯, 그녀와 전무와의 성관계는 관계로 이어지지 않는다. 성관계는 불가능하지만 관계는 사오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다.

노년의 트랜스젠더 여성 '루비'가 뇌졸중으로 쓰러진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것이 무리인 상황에서 루비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모르는 가족에게로 돌아간다. 고립된 소수자들은 그저 늙고 병들어간다. 어찌할 수 없이 우리는 잠시 슬퍼하다가 곧 떠나고는 잊어버린다. 이후에 루비는 어떻게 됐을까? 그녀가 돌아오지 않는 건 영화가 바라는 낙관적인 결말이다. 루비가 돌아온다면 비판적이지만 또한 희망적이기도 하다. 사오리를 중심으로 그 공동체의 정치적 비전이 형성된다. 한편, 낙인으로 가득한 메종 드 히미코의 담벼락은 호명의 도구가 된다. 사실 그렇다. 집 밖에 있더라도 우리는 줄곧 가족이라 부른다. 문제는 출입 가능성이다. 누가 알겠는가? 이따금 자신을 불러주고 문 열어주길 기다리는 이들이 얼마나 더 많을지. (박치영)



브로커 Broker

Director

고레에다 히로카즈

- 파비안느에 관한 진실 (2019)
- 어느 가족 (2018)
- 세 번째 살인 (2017)

한국 | 2022 | 130' | ㉔

10.23.(일) 14:30 CGV 인천연수 1관
Talk

토크

정은주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퇴직한 후 '전국입양가족연대', '아동권리보장원',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등에서 입양 교육 강사이자 웰다잉 강사로 활동 중이다. 책 『그렇게 가족이 된다: 핏줄신화를 넘어 또 다른 가족을 상상하며』를 펴냈다.

'소영(이지은)'은 사생아인 '우성'을 교회의 '베이비박스' 앞에 두고 간 다음 날, 다시 찾으러 가지만 이미 '상현(송강호)'과 '동수(강동원)'가 몰래 빼돌린 후였다. 그들은 돈을 받고 아기를 입양시키는 '브로커'이지만 좋은 부모를 찾아준다는 명목을 내세우며 그 행위를 합리화한다. 그리고 그들을 추궁하던 소영은 우성을 입양할 부모를 찾기 위해 동행한다. 한편, 형사 '수진(배두나)'과 '이 형사(이주영)'는 상현과 동수를 현행범으로 잡기 위해 반년째 그들의 뒤를 쫓고 있다.



소영은 우성을 마치 '하자' 있는 상품으로 취급하며 값을 흥정하는 부부에게 화를 낸다. 사실 그녀는 앞서 우성을 부정하는 친부를 살해했을 만큼 우성을 사랑하고 있다. 그녀에게 동화된 상현은 우성을 빼앗아서 죽은 친부의 부인에게 넘기려는 조폭을 살해한다. 죽은 이들은 우성을 그저 삶의 걸림돌이나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했기에 정당한 응징을 당한 것이다. 어느 순간, 영아 매매와 살인에 이르는 위법 행위들은 정당화를 넘어 우성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희생으로 전화한다. 그들을 체포하려던 수진마저 우성을 향한 이들의 마음에 동화되어 돌봄에 동참한다.

자식을 낳고서 버린 것을 질책하는 수진에게 소영은 '낳기 전에 죽이는 게, 낳고 나서 버리는 것보다 죄가 가벼워?'라고 반문한다. 이것은 영화가 관객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잉태된 아이는 반드시 태어나야 한다는 주장을 내포하고 있다. 생명의 탄생은 무척 고마운 일이기 때문이다. 산모는 아이가 사생아일지라도, 일단 낳아야 한다. 이후에 아이를 키우는 것은 친모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육아는 공동체적 책무이다.

결국 아이를 낳고 버리는 것보다, 그리고 아이를 판매하는 것보다, 나아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것보다, 더 나쁜 짓은 태아를 지우는 것이다. 이처럼 영화에서 감독의 집요한 기조는 낙태에 대한 반대이다. 단지, 모든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원론적인 주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생명의 돌봄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임신 중단의 근거에 반박한다. 즉, 낙태를 찬성하는 진영의 논리 중 하나인, 산모의 원치 않는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는 사랑받지 못해서 불행할 것이라는 가정에 맞선다.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태어난 것은 중요하지 않다. 아이의 행복과 불행은 주변 사람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김경태)



영주 Youngju

Director

차성덕

- 사라진 밤 (2011)
- 울지 않는다 (2007)

한국 | 2018 | 101' | ⑩

10.23.(일) 11:30 CGV 인천연수 3관
Talk

토크

조기현

스무 살 때 아버지가 쓰러지면서 '보호자'가 됐다. 무언가 읽고 보고, 누군가 돌보는 시간이 삶의 동력이 됐다. 누군가의 삶에 연료가 되고 싶어서 무언가 쓰거나 찍었다. 책 『아빠의 아빠가 됐다』, 『새파란 돌봄』을 냈고, 영화 <1포 10kg 100개의 생애>를 만들었다.

19살의 '영주(김향기)'는 5년 전에 부모를 교통사고로 잃고 중학생인 남동생 '영인(탕준상)'을 홀로 보살피고 있다. 가장으로서 학업마저 포기한 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책임진다. 그동안 마지못해 남매를 돌봐줬던 고모 부부는 대가로 그들이 사는 집을 자꾸 팔아버리려고 한다. 그럴 때마다 남매의 강한 저항에 부딪힌다. 남매는 부모와의 추억이 스며있는 집을 끝까지 지키고자 한다. 영주는 자신을 애 취급하는 고모를 향해 자신은 더 이상 애가 아니라고 받아친다. 그런데 영인이 학폭 사건에 연루되어 합의금이 필요해지자 고모를 찾아가지만 이미 그들에게서 마음이 떠났다는 잔인한 말을 듣고 만다. 이제 영주는 정말로 가족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만 하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내몰리고 만다. 스스로는 부정하고 싶지만, 영주는 아직 어른의 손길이 필요한 미성년자이다.



궁지에 몰린 영주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만든 교통사고 가해자의 집을 원망의 마음으로 무작정 찾아간다. 가해자인 '상문(유재명)'과 그의 아내 '향숙(김호정)'은 두부 가게를 운영하면서 식물인간이 되어 누워있는 하나뿐인 아들을 돌보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더욱이 상문은 사고로 사람을 죽였다는 트라우마로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다. 영주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두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 상문과 향숙은 소통이 불가능한 아들을 대신해 그녀를 보살피며 돌봄의 욕구를 충족한다. 영주는 부부에게서 아낌없이 주는 따뜻한 부모의 정을 오랜만에 느끼며 부모를 죽인 원수에 대한 복수심은 여지없이 무너져버린다. 자신의 삶에 비극을 가져온 이들이 이번에는 더없이 큰 행복을 주고 있다.

영주처럼 보살핌을 받아야 할 나이에 오히려 돌봄 노동으로 내몰린 청소년들을 '영케어러'라고 부르곤 한다. 그들은 가족들의 생계와 돌봄을 책임지기 위해 또래가 누릴 수 있는 삶을 포기하며 '어른'의 몫을 해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영주>는 영케어러를 이처럼 극단적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에 위치시키면서 돌봄의 의미를 배가시킨다. 돌봄이 간절하다면, 자신을 돌봐줄 이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돌봄은 모든 정체성의 의미에 앞서서 인간의 강렬한 본성인 결속과 유대를 위한 근본적 실천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영화는 돌봄에 대한 매우 현실적인 우화로 다가온다. (김경태)



친애하는 세입자

Dear Tenant

Director

청유치에

- 파나미 (2014)

- 양양 (2009)

대만 | 2020 | 107' | ㉔

10.22.(토) 17:00 CGV 인천연수 1관
Talk

토크

황두영

생활동반자법을 주장한 『외롭지 않을 권리』를 썼고, 『후보단일화 게임』도 썼다.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여기도잇슈'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보좌관,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다. 밀레니얼 세대의 정치감각을 대변코자 한다.

'린'은 동성 연인 '리웨이'의 집에 세입자로 들어간다. 리웨이는 병든 어머니, 어린 아들 '요유'와 함께 살고 있었다. 리웨이가 세상을 떠나자 린은 여전히 집에 머물며 가장으로서 리웨이의 가족들을 진심으로 돌본다. 돌봄에 대한 의지로 요유를 입양까지 한다. 그러나 리웨이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평소 어머니를 잘 찾지 않던 리웨이의 동생이 와서 린이 유산을 노리고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의심한다. 결국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린이 지키고자 했던 것들은 부정되고 무너져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유를 지키고자 최선을 다한다.

동성애 규범적 진보 서사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이어 승인된 동성 부부의 출산/입양을 통한 가족 구성을 모델로 삼는다. 가족 안에서 어른과 아이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기존의 이성애 규범적 사회에서 이미 익숙하게 학습한 역할을 수행/모방한다. 여기에서 관계 맺기의 동력은 관계 그 자체가 아니라 관계의 이름, 즉 부모-자식 관계의 사회적 인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진보 서사가 요원한 국가들에서는 영화를 통해 동성애자와 아이가 맺는 대안적인 관계성을 상상한다. 공교롭게도 대만의 <친애하는 세입자>를 비롯해 한국의 <정말 먼 곳>, 일본의 <히즈> 등 2020년에 공개된 일련의 동아시아 퀴어 영화들이 보여주는 경향이다. 게이들은 의도치 않게 아이와의 관계 속에 던져진다. 게이와 아이는 기존의 관계적 틀로부터 자유롭게 상호작용한다.

린은 요유를 열심히 돌볼 뿐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라는 강요를 하지 않는다. 호명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그것은 관계를 규정짓지 않고 그대로 열어두며 이름보다 돌봄의 의미를 오롯이 부각하려는 의지의 표명이다. 요유는 법정에서 린을 아빠가 아니라 '아빠 2번'으로 부르고 싶다고 말한다. 그렇게 요유는 린에 대한 호칭을 스스로 발명하며 능동적으로 관계에 개입한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린의 게이라는 정체성을 아이 돌봄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며 그를 요유와 분리시키려 한다. 여전히 게이는 성애적으로 과잉된 존재이다. 관계의 근본적 작인은 정체성이 아니라 상호적 돌봄이어야 한다. 어떤 관계가 돌봄 수행으로 충만하다면 관계의 이름은 부차적이다. 다른 사회적 가치 평가를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오직 돌봄의 적극적 실천 하에서만 관계는 무한한 확장성을 갖는다. 그 안에서 관계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각자의 고유한 이름을 찾아갈 뿐이다. (김경태)



인천 영화

올해 특별전에서는 우리 시대의 가모장을 대표적으로 표상하는 배우인 윤여정의 영화들을 돌아보고자 한다. 특히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윤여정은 가부장이 부재하거나 결핍된 (유사)가족의 견고한 구심점으로서 각양각색의 구성원들을 아우르며 이끌어가는 외유내강의 가모장 역할을 맡아왔다. 그런데 윤여정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헌신하면서도 그저 가족의 배경으로 가만히 물러나 있지 않는다. 홀로 마냥 인내하고 희생하는 전통적인 모성의 이미지에 머물지 않으며 나름의 욕망에 충실한 주도적인 가모장 상을 구현해낸다. 그녀는 모든 가족의 시작이자 끝으로서, 가족의 성격을 결정짓고 가족을 자신만의 고유한 빛깔로 물들인다.

그중 이번 특별전에는 4편의 영화를 선보인다. 먼저 <고령화 가족>에서는 나이를 먹고도 제 앞가림을 못하는 자식들에게 묵묵히 밥을 해먹이며 그들의 어떤 치부도 끌어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준다. 제주 해녀로 분한 <계춘할망>에서는 하나뿐인 손녀를 헌신적으로 보살핀다. 헌신은 뜻하지 않게 혈연을 넘어서는 가족의 연결고리가 된다. 한편, <죽여주는 여자>의 경우, 노년의 성 노동자로 등장해 소외된 이웃들을 고유한 방식으로 돌보며 가모장의 이상적인 모습을 환기한다. 마지막으로 <그것만이 내 세상>의 윤여정은 죽음을 앞두고서 자신이 버렸던 아들과 장애가 있는 아들을 이어주며 속죄하는, 너무나 인간적인 가모장의 얼굴로 가슴을 울린다. 누구보다 윤여정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감독들과 '무비건조'팀의 평론가들이 참여해 특별전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주간

특별전

:

우리 시대
가모장의 얼굴,
윤여정

계춘할망

Canola

Director

창

- 피원에이치: 새로운 세계의 시작 (2019)
- 숲속의 아이 (2017)
- 치명도수: RESET (2016)

한국 | 2016 | 117' | ⑩

10.23.(일) 18:00 CGV 인천연수 3관
Talk

토크

김도훈

작가, 영화 칼럼니스트. 2004년 영화 주간지 『씨네 21』 기자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남성 패션지 『GEEK』의 디렉터와 온라인 미디어 『허핑턴포스트』 편집장을 거쳤다. 에세이 『우리 이제 낭만을 이야기합니다』를 썼다.

토크

이화정

영화 저널리스트. 전 『씨네 21』 취재팀장. 현 유튜브 <무비건조> 멤버이며, MBC <출발! 비디오여행> 인터뷰어로 출연 중이다. 한국 영화계 성평등 인식 향상을 위한 '백델데이' 프로그래머이자 경기영상위원회 자문위원이다. 저서로 『영화평도 리콜이 되나요?』(공저) 등이 있다.

토크

주성철

영화평론가. 『키노』, 『필름 2.0』을 거쳐 『씨네21』 편집장으로 일했다. 『그 영화의 뒷모습이 좋다』 『영화평도 리콜이 되나요?』(공저) 등을 썼다. JTBC <방구석1열>, OCN <0씨네>, 유튜브 <무비건조>에 출연 중이다.

<계춘할망>에서 윤여정은 검게 그을린 거친 피부와 깊게 패인 주름을 지닌 얼굴의 제주 해녀 '계춘'으로 분해 손녀를 위해 헌신하는 가모장의 모습으로 관객들의 가슴을 울린다. 계춘은 12년 전에 시장에서 잃어버렸던 손녀 '혜지(김고은)'와 마침내 재회한다. 혜지가 돌아올 거라 믿으며 팔지 않았던 낡은 집에서 다시 예전처럼 단둘이 살게 된다. 이제 여고생이 된 혜지는 계춘과의 관계를 서먹해하며 낯선 제주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이내 그녀의 진심에 마음을 연다. 혜지의 품행이 불량하다는 동네 주민들의 뒷담화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혜지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낸다. 계춘은 혜지에게 언제나 네 편을 들어 줄 테니 원하는 대로 살라고 말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이제 혜지도 계춘을 챙기며 자신을 향한 믿음에 보답한다.

사실 혜지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친손녀 행세를 하면서 계춘을 속이고 있었다. 과거에 혜지는 어머니를 교통사고로 잃었고 도박에 빠져 빚에 시달리는 아버지와는 연을 끊었기에 어른들로부터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했다. 심지어 아버지는 제주도까지 찾아와서 혜지에게 돈을 요구한다. 그녀가 경험해 온 어른의 세계는 그런 것이었다. 그만큼 계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무척 낯설고 어리둥절하다. 그럴수록 자신의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은 더 커진다. 결국 혜지는 친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떠나지만, 이제 계춘에게 더 이상 핏줄의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자신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고백한다. 영화의 진정한 반전은 혜지의 정체가 아니라 계춘의 마음이다.

여기에서 혈연이라는 믿음, 혹은 오해는 그저 가족의 출발점으로서 기능했을 뿐이다. 가족은 원래 그런 관계로 세상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부대끼며 보살피는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실 혜지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은 아버지로 인해 오히려 족쇄와 같았다. 우연히 가족으로 맺어진 연이 의미를 갖고 필연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계춘할망>은 가족의 근간이 핏줄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믿음이라고 말한다. 윤여정은 그 깨달음의 지난한 과정을 뛰어난 연기로 펼쳐 보인다. 그리하여 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하는 것과 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하는 것 사이의 간극을 단숨에 좁혀낸다. (김경태)



고령화 가족

Boomerang Family

Director

송해성

- 무적자 (2010)
-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2006)
- 역도산 (2004)

한국 | 2013 | 113' | ㉔

10.22.(토) 14:30 CGV 인천연수 2관
Guest Visit

<고령화 가족>에서 윤여정은 각자의 사연으로 본가로 돌아온 장성한 삼 남매를 군말 없이 품고 돌보는 관대한 홀어머니 '남순'으로 등장한다. 백수인 큰아들 '한모(윤제문)'는 한때 강패 짓을 하며 교도소를 들락거렸다. 영화감독인 둘째 아들 '인모(박해일)'는 영화가 망해서 옥탑방 월세조차 못 내고 있다. 막내인 딸 '미연(공효진)'은 두 번째 이혼을 위해 중학생 딸과 집을 나온다. 그런데 정작 남순이 남편과 낳은 자식은 인모뿐이며, 한모는 남편의 전 부인이 데리고 왔고 미연은 남순의 외도로 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순은 어느 누구 하나 차별하지 않고 보살펴왔다.

자식들은 얼굴만 마주 보면 서로 으르렁대고 티격태격하지만, 남순은 잘잘못을 따지며 편을 들거나 훈계하지 않고 싸움을 말리지만 한다. 그 이면에 존재하는 형제간의 깊은 애정을 알기에 일상적인 다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 태도는 고스란히 자식들에게도 스며들어 있다. 그들의 다툼은 애정의 서투른 표현 방식이다. 반면에, 남순은 자식들이 뭉쳐서 외부의 적(?)과 상대할 때는 오히려 가만히 관조하거나, 나아가 독려하기까지 한다. 횡집에서 자식들이 시비가 붙어서 다른 손님들과 싸우는 장면에서, 혼자 아무렇지 않게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은 흡사 조직의 외유내강한 보스처럼 보이기도 한다. 남순은 더없이 온화한 태도로 자식들을 자기 방식대로 길들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남순은 자식들에게 매일 삼겹살을 구워주며 가모장으로서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역할, 즉 자식들을 배불리 먹이는 최소한의 역할에 열중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나이에 걸맞은 사회적/경제적 성공을 요구하거나 기대하지도 않는다. 또한 남순이 자식들을 포용하는 모습은 전통적인 가부장이 자신의 권위와 규율에 복종한다는 전제하에서 시혜적으로 베푸는 관용과는 분명 다르다. 남순에게는 자식들에게 존중을 요구하는 일말의 권위도, 자식들이 지켜야만 할 규율도 없다. 또한 그녀는 정절과 희생으로 귀감이 되는 현모양처의 이미지와도 거리가 멀다. 적지 않은 나이에도 화장품 외판원으로서 돈을 벌고 연애하며, 나름 독립적이면서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남순은 '같이 살고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가족의 가장 원초적인 정의로 회귀하며 그것의 본래 의미를 환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가족의 재발명은 바로 그 기원의 재고로부터 출발한다. (김경태)



그것만이 내 세상

Keys to the Heart

Director

최성현

- 그것만이 내 세상 (2018)

한국 | 2017 | 121' | ㉔

10.23.(일) 11:00 CGV 인천연수 1관
Curation

영화 해설

주성철

영화평론가. 『키노』 『필름2.0』을 거쳐 『씨네21』 편집장으로 일했다. 『그 영화의 뒷모습이 좋다』 『영화평도 리콜이 되나요?』(공저) 등을 썼다. JTBC <방구석1열>, OCN <O씨네>, 유튜브 <무비건조>에 출연 중이다.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 윤여정은 식당에서 일하며, 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천재적인 재능의 피아니스트 아들 '진태(박정민)'를 홀로 키우는 '인숙' 역을 맡았다. 윤여정은 이 영화에서도 앞선 영화에서처럼 헌신적으로 자식을 돌보는 어머니를 연기한다. 다만 앞서 봤던 끝까지 참고 견디는 가모장의 모습보다는 더욱 감정적이고 조금은 더 이기적이다. 사실 17년 전에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당시 중학생이었던 아들 '조하(이병헌)'를 두고 혼자 집을 나왔다. 다리에서 뛰어내려 죽을 생각이었으나, 결국 다른 남자를 만나 진태를 가지게 되었다. 과거에 조하를 버렸던 죄책감 때문인지, 인숙은 더욱 진태에게 애정을 쏟는다.



한물 간 복서로 오갈 데가 없는 조하를 다시 만나 그동안 못했던 엄마 노릇을 하며 마음의 짐을 덜고자 함께 살자고 했을 때도, 인숙은 어쩔 수 없이 문득문득 진태에게 마음이 더 기운다. 아무래도 진태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하가 진태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때마다 그에게 불같이 화를 내곤 한다. 다행인 건, 인숙도 자신의 그런 감정적인 행동을 뒤늦게 후회하며 미안해한다. 그래서 술기운에 스스로 엄마 자격이 없다고 털어놓는다. 그러다가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허허실실 조하를 부추겨서 함께 춤을 추기도 한다. 이 영화에서 윤여정은 가장 불안전하고 인간적인 가모장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희생과 인내로 점철된 모성 신화에 미세하게 균열을 낸다.

사실 인숙은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으나 조하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그에게 부탁해야 할 더 큰일이 있기 때문이다. 병상에 누워 죽음을 앞둔 인숙은 자신을 원망하는 조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기적인 행동에 나선다. 이번에는 자신이 아니라 진태를 위해서이다. 염치 불구하고 조하에게 진태를 부탁한다. 마침내 조하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친아버지를 찾아가 절연을 선언한다. 이 영화에서 가부장은 부재하거나 무능력하다. 아니, 오히려 가족 결속의 방해꾼에 불과하다. 조하는 인숙을 통해 가부장을 부정할 용기를 얻는다. 이제 조하와 진태는 인숙이 서로에게 남긴 유일한 가족이 된다. 나아가 인숙은 가족의 진정한 의미까지 뒤늦게 가르쳐 준다. 덕분에 진태는 조하에게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선물 같은 존재가 된다. (김경태)



죽여주는 여자

The Bacchus Lady

Director

이재용

- 두근두근 내 인생 (2014)
- 뒷담화: 감독이 미쳤어요 (2012)
- 여배우들 (2009)

한국 | 2016 | 111' | Ⓜ

10.22.(토) 18:00 CGV 인천연수 2관
Guest Visit

<죽여주는 여자>에서 윤여정은 박카스를 팔며 성매매 하는 노인 '소영'으로 분했다. 소영은 종로의 파고다 공원과 낙원 상가 주변을 배회하며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몸을 팔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녀는 트랜스젠더 여성인 '티나'의 집에 세 들어 산다. 그 집에는 의족을 차고 있는 장애인 '도훈(윤계상)'도 살고 있다. 성병 치료를 위해 방문한 병원에서 의사에게 가위를 휘둘러 잡혀간 필리핀 여성의 혼혈아 '민호'를 집으로 데려온다. 티나를 비롯해 도훈과 민호는 소영의 부재한 가족을 대신한다. 소외된 계층에 속한 이들은 서로를 돌보며 외롭고 팍팍한 삶을 버텨내며 그 중심에 소영이 있다.

'죽여주는 여자'라는 호명에는 중의적인 의미와 더불어 서사의 복선이 담겨있다. 소영은 섹스를 '죽여주게' 잘한다고 소문난 성 노동자에서 출발해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된다. 소영은 파고다 공원에서 친분을 쌓아서 오빠라고 부르는 '재우(전무송)'를 오랜만에 만나서 함께 친하게 지내던 '세비로 송'이 중풍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녀는 깊이 연민하는 마음으로 병문안을 가서 그를 위로해 준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그녀를 '꽃뱀'으로 의심하며 선의를 왜곡한다. 가족이 아닌 타인이 보내는 병든 노인을 향한 관심은 그 순수성이 훼손되곤 한다. 다만, 소영은 누구보다 뛰어난 공감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처 입거나 버려진 이들을 쉬이 지나치지 못할 뿐이다. 그래서 자신의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거두고 보살핀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은 돌봄 행위의 기원이 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소영이 그저 노인들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충위를 넘어 정서적으로 돌봐주는데 탁월하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그녀의 명성은 정서적인 돌봄 능력 덕분일지 모른다. 심지어 그녀는 세비로 송의 간절한 부탁을 받아 그에게 농약을 먹여 죽게 한다. 이것을 시작으로 죽고 싶어 하는 노인들의 죽음을 돕는다. 그녀의 살인은 돌봄 행위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생명에 대한 절대적 가치보다는 당사자의 죽고자 하는 바람을 존중하는 윤리적 실천을 한다. 삶의 영역을 초월해 죽음까지 아우르는 과잉된 돌봄이다. 그리고 소영은 기꺼이 자신의 죄를 받아들인다. 노인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윤여정의 너무나 인간적인 가모장의 얼굴은 그 돌봄에 정서적 당위성을 부여한다. (김경태)



**SEE
YOU**

**IN
CINE-
MA**

∴
**극장에서
만나요**

SEE YOU IN CINEMA : 극장에서 만나요

인천 영화 주간 2022가 야심 차게 준비한 영화 관람 프로그램 <SEE YOU IN CINEMA : 극장에서 만나요>

시민들의 적극적인 영화 관람을 독려하고 지역 극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인 <SEE YOU IN CINEMA : 극장에서 만나요>는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인천 내 4개의 지역 극장과 함께 진행한다.

참여하는 4개의 지역 극장은 과거 부평의 핫플레이스로 명성을 떨친 '대한극장'부터 한국 최초의 극장인 '애관극장', 다양한 독립 예술영화들을 선보이고 있는 '영화공간주안' 그리고 고전 영화부터 독립예술 영화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인천 미림극장'이 함께한다. 이 극장들은 지역에서 문화 사랑방의 역할을 해오는 동시에 원도심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오며 인천 영화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지역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소중한 경험을 해보길 바라며, 이를 통해 지역 극장이 시민들과 상생하며 더욱 승장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SEE YOU IN CINEMA : 극장에서 만나요>는 인천 영화 주간 공식 홈페이지 내 사전 신청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1인 1매 선착순으로 제공되며 신청 시, 참여 극장에서 무료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관람 쿠폰을 제공한다.

사전 신청 기간	10.11.(화)—10.20.(목)
사전 신청 방법	인천 영화 주간 2022 공식홈페이지(www.ifwk.co.kr) 참조
관람권 사용 기간	10.24.(월)—10.28.(금)
참여 극장	부평 대한극장, 애관극장, 영화공간주안, 인천 미림극장

부평 대한극장



1964년 개관하여 50년 넘게 한자리에서 운영하고 있다. 90년대까지는 1개관으로 개봉하였고, 이후에 빌딩을 신축하여 1, 2관으로 3층, 4층에 운영 중이다. 최근에 천정과 벽을 새로 수리 및 도색하여 더욱 쾌적한 관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소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382, 대한빌딩

운영시간 13:00—19:00

관람가격

일반 8,000원

청소년 7,000원

경로, 장애인 6,000원

애관극장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인 애관극장은 1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극장이다. 청소년들은 착한 가격으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고, 2,30대에게는 레트로한 영화관으로 유명해 이색 데이트 장소로 많이 찾는다. 그뿐만 아니라 4,50대 이상의 분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의 공간을 형성한다. 또한 애관극장은 영화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상영관 통로 곳곳에 역사적 기록이 전시되어 있어 영화 관람뿐만 아니라 극장의 역사적 가치도 공부할 수 있다. 타 영화관 대비 절반 수준의 티켓값과 편리한 교통편, 영화 관람객 대상 주차장 무료 이용까지! 극장 주변 놀 거리, 먹 거리도 많아 가족, 친구, 연인끼리 데이트 코스로 좋다.

애 : 애들부터 어른까지

관 : 관계없이 모두 환영합니다.

극 : 극장 그 이상의 가치, 추억을 품은

장 : 장소. 반갑습니다. 애관극장입니다!

주소 인천 중구 개항로 63-2, 애관극장

운영시간 10:00—23:00

관람가격

일반 8,000원

청소년 7,000원

영화공간주안



영화공간주안은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첫 예술영화 전용관으로 2007년 4월 30일 설립, 올해로 개관 15주년을 맞이했다. 네 개의 상영관과 한 개의 다목적 소공연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 개 관 모두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예술영화관으로 인정받아 운영되고 있다. 지난 15년간 총 2,500여 편의 작품을 약 56,659회 걸쳐 상영했으며, 622,000여 명의 관객과 만나왔다. 인천의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다양성 예술 영화를 사랑하는 많은 관객에게 소중한 국내외 최신 예술 영화를 선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시네마차이나 인천’, ‘영화공간주안 시네마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영화공간주안 리뷰어’를 운영하며 온라인을 통해 관객들에게 다양한 영화를 소개한다.

주소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716, 메인프라자

운영시간 13:00—22: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 휴관)

관람가격

주중 6,000원

주말(금,토,일) 및 공휴일 8,000원

경로, 청소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단체(10인이상)

5,000원

문화가 있는 날(매주 수요일) 5,000원

인천 미림극장



미림극장은 1957년 11월 인천 동구 송현동에 천막을 세워 무성 영화를 상영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인천을 대표하는 영화관으로 오랫동안 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왔다. 이후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공세에 밀려 2004년 폐관 후 잠시 시민들의 걸을 떠나 있다가 2013년 10월 노년 세대를 위한 고전영화관 콘셉트로 재개관했다. 현재는 고전영화와 함께 독립·예술영화를 꾸준히 상영하며 단관 영화관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문화다양성을 위한 노력으로 인천 예술인들과의 협업, 공동체상영회 기획, 청소년 진로체험 등을 통해 지역의 문화 사랑방이자 원도심의 지켜야할 소중한 문화유산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주소 인천 동구 화도진로 31, 미림극장

운영시간 09:30—21:00

관람가격

일반 8,000원

경로, 청소년, 장애인 6,000원

이벤트

인천 영화 주간 2022가 개최되는 CGV 인천연수는 관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진다. 특히 CGV 로비에는 '함께 만드는 인천 영화 주간'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인천 영화 주간에서의 추억을 기록할 수 있는 포토 부스와 우리 가족을 소개하는 'IFWK2022: 가족사진전', 관객들의 넘치는 센스를 발휘해볼 수 있는 'IFWK2022: 신춘문예'가 진행된다. 그리고 관객이 직접 만드는 포스터 컬러링과 IFWK 블록 체험도 마련되어 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인천 영화 주간! 많은 관객의 참여로 풍성하게 꾸러지길 기대한다.

IFWK2022 : 가족사진전

포토 부스는 인천 영화 주간을 함께 즐기고 있는 이들과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공간이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포토 부스 옆 준비된 게시판에 나의 가족을 소개하고 전시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만나볼 수 있다. 'IFWK2022: 가족사진전'은 혈연중심적인 가족을 넘어 1인 가구, 입양가족, 반려동물, 생활 동반자 등 대안적인 가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기회가 될 것이다.

일시 10.22.(토)—10.23.(일) 11:00—19:00

장소 CGV 인천연수 로비

유의 사항

- 손 세정제를 이용하여 손 소독을 해주세요.
- 대기 줄에서는 앞사람과 거리두기를 유지해 주세요.
- 사진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객분들은 출력되는 포토를 게시판에 자유롭게 붙여주세요.
- 안전하고 쾌적한 포토 부스 이용을 위하여 에티켓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FWK2022 : 신춘문예

삼행시 고수 모여라! 인천 영화 주간과 관련한 키워드로 참여해보는 'IFWK2022: 신춘문예'. 인천 영화 주간을 방문하는 누구나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다. 게시판에 삼행시 실력을 뽐내보자!

영: 영주간 신춘문예
주: 주인공은 나야나!!
간: 간절하게 원해요~~

일시 10.22.(토)—10.23.(일) 11:00—19:00

장소 CGV 인천연수 로비

유의 사항

- 손 세정제를 이용하여 손 소독을 해주세요.
- 사용한 펜은 제자리에 두어주세요.
- 신춘문예존은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비속어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IFWK2022 : 컬러링 체험

인천 영화 주간의 또 다른 가족인 관객들과 함께 만드는 인천 영화 주간 합작 프로젝트. 포스터 컬러링 체험!
관객들의 손길을 통해 완성될 우리 모두의 인천 영화 주간 포스터를 기대해 보자!

일시 10.22.(토)—10.23.(일) 11:00—19:00

장소 CGV 인천연수 로비

유의 사항

- 손 세정제를 이용하여 손 소독을 해주세요.
- 사용한 펜은 제자리에 두어주세요.
- 종이 이외에 다른 곳은 칠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IFWK2022 : 블록 체험

하나하나 관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인천 영화 주간! 자투리 목재를 활용해 제작한 업사이클링 나무 블록을
차곡차곡 채워 인천 영화 주간의 영문 약자 'IFWK'를 만들어보자.

일시 10.22.(토)—10.23.(일) 11:00—19:00

장소 CGV 인천연수 로비

유의 사항

- 손 세정제를 이용하여 손 소독을 해주세요.
- 우드블록을 던지거나, 가져가지 말아 주세요.

IFWK2022 : 버스킹

스퀘어원 야외광장에서는 주말 동안 두 번의 영화 상영과 버스킹 공연이 진행된다. 야외 상영에 앞서 진행될 버스킹 공연에서는 애니메이션 OST를 활용한 사랑스러운 공연과 더불어 남녀노소 다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음악을 연주하는 실력과 뮤지션들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일시 10.22.(토)—10.23.(일) 18:00

장소 스퀘어원 야외광장

야외 상영 및 공연 일정

시간/날짜	10.22.(토)	10.23.(일)
18:00	빈체	옐로위크
19:00	인크레더블 (2004)	마당을 나온 암탉 (2011)

아티스트



빈체

솔직하고 자유로운 감성으로 공감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빈체 : VINCHE.
맑은 듯 허스키한 음색으로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을 선사한다.



옐로위크

'KBS2 유희열의 스케치북', 'MBC 무한도전 가요제' 등에서 다양한 음원 참여를 한 실력과 혼성밴드 옐로위크. 대중성과 유쾌함으로 관객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보이는 밴드이다.

유의 사항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 의자는 이동하지 말아주세요.
- 이동 시 분실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도움주신 분들

고은화 인천광역시

곽정미 스퀘어원

김경아 인천광역시

김나은 영화공간주안

김성호 경인일보

김수향 스퀘어원

김영준 경인일보

김운봉 부평대한극장

김은미 CGV

김종광 부평대한극장

김혜인

박미영 영화평론가

박예진 스퀘어원

박종우 CGV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소윤하

손영민

안종민 CGV

양상훈 인천광역시

우영태

윤준식 스퀘어원

윤지혜 CGV

이강호 씨네21

이동윤 영화평론가

이용철 애관극장

이원석 감독

이혁상 디아스포라영화제

임다정 스퀘어원

장석호 CGV

장지혜 인천일보

전선경 영화공간주안

전정분 부평대한극장

정정도 인천광역시

최요한 스퀘어원

최현경 CGV

최현준 인천미림극장

탁경란 애관극장

한국영상자료원

한준희

만든 사람들

인천 영화 주간 2022
INCHEON FILM WEEK 2022

(22314)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06번길 17

Tel +82 32 435 7172

홈페이지 ifwk.co.kr

발행일 2022년 10월 5일

본 책자는 10월 5일자로 인쇄되었습니다.

이후 변동사항은 인천 영화 주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인 백현주

편집 이진선

디자인 인볼드

인쇄 타라티피에스

만든 사람들
Credit

운영위원장 백현주

사무국장 이재승

프로그래머 김경태

기획/운영 김경진, 최다희

프로그램/초청 고은주, 박치영

홍보 고태윤, 이진선

행사기록 주식회사 왓츠더워드

프로그램 노트 김경태, 박치영, 이동윤

주최  인천광역시

주관  INCHEON FILM
COMMISSION
인천영상위원회

협력        인천미림극장

PRIVATE BOX

THE CINEMA, JUST FOR US



CGV*